

우리말의 단어는 성격에 따라 순우리말,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순우리말은 단어에 한자나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로서, 모든 부분이 우리말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뜻한다. 순우리말 중에는 현대에 들어 만들어진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순우리말은 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말들이다. 순우리말은 ‘고유어’라고도 하는데, 순우리말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민족 고유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순우리말을 살려 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순우리말의 예로는 하늘, 바람, 각시, 함초름, 싱그럽다, 밧그레하다 등이 있다.

한자어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조선 시대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자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했던 단어 중 알고 보면 한자어인 것도 꽤 있다. 한자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뜻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한자어의 예로는 주말(週末), 학교(學校), 방학(放學) 등이 있다.

외래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로서, 다른 나라 말을 빌려 와서 우리말 처럼 쓰는 말을 뜻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넓어지고 새로운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게 되면서, 외래어는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누리꾼(netizen), 비행기(airplane) 처럼 그 말을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 라디오(radio)처럼 그 말을 우리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받아들여 쓰기도 한다. 외래어의 예로는 뉴스(news), 파티(party), 티셔츠(T-shirt) 등이 있다.



핵심 요약에
체크해 보세요.

우리말의 [□단어 / □구조]를 성격에 따라 나눠 보고, 그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는 / □주장하는] 글입니다.



내용 파악

다음은 ‘순우리말’에 반영된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 민족의 □과 □, 그리고 민족 고유의 □입니다.



06~10

일차

글 읽기를 위한 어휘 연습

중요한 낱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에 써 보세요.

응시

(응할 應, 시험 試)

시험에 응함.

그는 이번 시험에 □□ 하지 않을 생각이다.

토대

(흙 土, 돈대 臺)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책은 글쓴이가 실제 겪은 일을 □□로 쓴 것이다.

스트레스

(Stress)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

□□□□가 많이 쌓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당분간

(당할 當, 나눌 分, 사이 間)

앞으로 얼마간. 또는 잠시 동안.

그 가게는 □□□ 문을 열지 않는다.

한결

전에 비하여서 한층 더.

그의 얼굴이 예전보다 □□ 밝아 보인다.

볼록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솟 내밀린 모양.

개구리의 배가 □□ 튀어나왔다.

함초롬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그녀는 눈에 □□□ 물기를 머금고 있어.

누리꾼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들은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진출

(나아갈 進, 나아갈 出)

어떤 방향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감.

최근 국내 기업들의 외국 이 크게 늘고 있다.

출세

(날 出, 인간 世)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그는 를 꿈꾸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장원 급제

(씩씩할 壯, 으뜸 元,
미칠 及, 차례 第)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던 일.

이 도령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를 했다네.

등급

(가지런할 等, 등급 級)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 따위의 차이를 여러 층으로 구분한 단계.

고기를 신선도에 따라 세 으로 나누었다.

말썽

일을 들추어내어 트집이나 문젯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

딸이 너무 을 피워서 골치가 아프다.

모레

내일의 다음 날.

내일이 12일이면 는 13일이다.

순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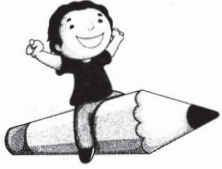
우리말 중에서 고유어만을 이르는 말.

아름다운 은 민족의 자랑이다.

발그레

얇게 발그스름한 모양.

소녀의 볼이 물들었다.



06~10

알차

어휘력 쑥쑥 테스트

[01~04] 다음의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볼록

응시

토대

함초롬

01 시험에 응함.

02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03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쑥 내밀린 모양.

04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5~07]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05 우리 만나지 말자.

*뜻: 앞으로 얼마간. 또는 잠시 동안.

06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를 받고 있다.

*뜻: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

07 인터넷 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리었다.

*뜻: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08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

① 친구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닳다.② 운동을 하고 나니 몸이 가뿐해졌다.

설명하는 글 문제 ①~⑤

공급은 재화와 용역을 팔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공급자, 공급자가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재화와 용역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공급자는 공급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예를 들어, 일기장을 만들어서 3천 원에 파는 기업이 있는데 일기장 값이 5백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 반대로 일기장이 1만 원으로 오른다면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요는 재화와 용역을 사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물건의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3천 원에 팔던 일기장을 어떤 문구점에서 하루 동안 5백 원에 판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반대로 1만 원에 판다면 웬만해서는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처럼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모두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상품을 팔려는 사람은 가능하면 비싼 가격을 받고 싶어 한다. 반대로 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되도록 싼 가격에 사려고 한다. 하지만 가격은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둘 다 동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핵심 요약에
체크해 보세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 / □재화와 용역]이 결정되는 원리를 예를 들어 가며 쉽게 [□설명하는 / □주장하는] 글입니다.



내용 파악

‘공급’과 ‘수요’가 모두 모이는 곳은 어디인지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